

사회



1억 짜리를 10억에? ... '바가지 청자' 매입 재수사

감사원, 돈 받고 감정이 부풀린 정황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 ... 의혹 밝혀질지 관심

'강진군이 고려청자를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강진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관계자 8명을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 의뢰에 따른 새로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려청자 2점을 구매한 것과 관련, 특정 감정 위원이 소장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이 지난 2일 수사를 의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청자박물관은 지난 2007년과 2009년 '청자상감 모란국화 연화문 과꽃주자' <사진> 1점과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 1점을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한나라당 성운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진청자박물관이 이들 고려청자를 실제 가격보다 10배 가량 비싸게 주고 샀다'고 주장해 의혹이 일었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해 의혹을 풀기 위해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 관계자 8명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소했다. 장흥지청은 사건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가져야 풀 수 있다는 광주일보 지적(2009년 10월30일 2면)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31일 사건 조사 결과 관계자 8명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결과를 통보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감정위원과 청자 소장자 간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감사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물증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 이번에는 용의점이 밝혀질 개연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강진 '바가지 청자' 사건은

'바가지 청자'의혹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성운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성 의원은 "강진청자박물관이 2007년 구매한 고려청자의 가격이 감정위원과 소장자 간 친분관계로 실제보다 10배 가량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정위원 3명이 문제의 고려청자에 대한 감정가를 똑같이 책정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졌다.

성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진군은 재감정을 실시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감사원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고, 강진군이 문제의 청자를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고소해 결국 검찰의 수사로 번졌다.

청자를 둘러싼 의혹의 여파로 강진군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군과 주민들이 성운환 의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나원침 (8204) 김중두



예술의 거리 변영회(회장 안철환)는 24일 상가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술의 거리 확대 지정을 축하·기념하기 위해 '가보고 싶은 거리, 신나는 예술' 행사를 개최, 축하공연과 함께 골동품 경매 및 바자회를 가졌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울 강남 유흥가 무대 금품갈취·행패

호남권 조폭 76명 무더기 검거

서울 강남의 유흥가를 무대로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 업소의 약점을 트집잡아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행패를 부린 호남권 폭력조직원 7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노래방의 약점을 발미로 돈을 빼앗고 공짜 술을 마신 폭력조직원 76명을 집단·흥기 공갈 등의 혐의로 불발자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민모(2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술을 파는 노래방을 찾아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500만원씩 뜯거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양OB와 국제PJ과, 무등산과 등 호남지역 폭력조직 소속이거나 추종세력으로, 노래방 업주 20여명은 이들로부터 모두 2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국제PJ과 행동대원 강모(29)씨 등은 업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동료 조직원들을 데려가 야구방망이와 당구대로 가세 유린 등을 하고 종업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씨 등 일부 폭력배는 논현동 일대에서 남자 접대부를 알선하는 업자들을 불러모아 '강남 남보도합회'라는 단체를 만든 뒤 업소 알선 및 회비 명목으로 매달 20만~3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남원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광주교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고 하여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순호(56)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검찰, 순창군수 징역 1년 구형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3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종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 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산구, 문화재청 사업 공모 당선

서원스테이 '월봉서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

광주시 광산구는 문화재청이 주관한 '2011 문화재 생생사업 공모'에 우수사업으로 당선돼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광산구는 전국 21개 지자체의 우수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공모에 당선된 광산구의 '월봉서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은 고흥기대상 선생의 숨결이 스며있는 월봉서원에서 역사와 자연, 상상을 주제로 문화 나눔의 장을 펼치고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서원스테이를 운영하는 등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월봉서원 드라마 판타지야 ▲광산 500년 역사 초대장을 찾아서 ▲고봉 어린이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등으로 꾸며진다. 광산구는 내년 2월 7000만원의 구비를 들여 준공하는 월봉서원 체험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문화재청 사업 공모에 당선됐으며, 지난해에는 '고봉선생이 피우는 미래의 초대'가 당선돼 30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문화재청 공모에서는 전국 21개 사업이 뽑혔으며 진도의 '진도 북놀이 생생 체험'과 신안의 '바다의 기억이 지워지면 소금이 온다', 전주의 '정기전 태조어진 생생체험', 김제의 '쌍용의 울부짖음으로 벽골제를 깨우다' 등이 각각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전북취재본부=백성진기자 bs8787@



산타가 된 조선대생들 조선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산타 복장을 하고 광주 무등역 이원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뒤, 흥겨운 유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선대 제공>

대낮 주택가 강도 현금 빼앗아 도주

대낮 도심 주택에 강도가 침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오후 5시50분경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윤모(74)씨의 집에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강도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강도는 윤씨 부부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부인(73)이 강도가 휘두른 주먹과 흉기에 맞아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cm 가량의 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용의자를 찾고 있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피자값을 카드로? 주문자 폭행

○30대 피자 배달원이 피자 값을 신용카드를 계산하려던 고객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피자 배달원 박모(38)씨는 지난 23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한 독서실에서 피자 배달을 하던 중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강도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강도는 윤씨 부부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부인(73)이 강도가 휘두른 주먹과 흉기에 맞아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cm 가량의 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용의자를 찾고 있다. /김홍기자 kimho@kwangju.co.kr

해경 경비함 들이받은 중국 선원 3명

불기소 처분 ... 中 인도 방침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사고(광주일보 12월 20일 6면)를 조사중인 군산해양경찰은 해결 경비를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어선 요원호의 선원 3명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24일 "선장이 사망했고, 이들 선원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에서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고 밝혔다. 해경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중국 측과 협의해 25일째 이들 선원을 중국 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중국 측도 이들 선원이 풀려날 경우에 대비해 배편이나 항공기 편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원은 지난 18일 낮 12시5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72마일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을 62급 어선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5일째 조사를 받아왔었다. 당시 사고로 요원호가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또 단속 과정에서 요원호에 타러던 해경 4명이 요원호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Kwangju. Includes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A map of Korea shows weather patterns across various regions. Below the map are temperature forecasts for major cities like Gwangju, Mokpo, and Jeonju. At the bottom, there are tide tables for the morning and afternoon, and a 6-day weather outlook.

생활 게시판

A community notice board section. It features several notices, including a memorial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故 박순옥 님), a notice about a lost item (故 박광모 님), and a notice about a lost item (故 조현순 님). There are also notices about a lost item (故 박광모 님) and a notice about a lost item (故 조현순 님). The secti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otices.

A collection of notices and advertisements. It includes a notice about a memorial service (故 박순옥 님), a notice about a lost item (故 박광모 님), and a notice about a lost item (故 조현순 님). There are also notices about a lost item (故 박광모 님) and a notice about a lost item (故 조현순 님). The sectio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otices.